

# 자연과 함께하는 친화적 교육환경 필요

## 교사들 꾸준한 자기개발로 과거보다 수준 높아져 ... 모자 사생대회 등 계획

### 제7대 고성군보육시설연합회 박귀자 회장

“어린이들이 자연과 벗삼아 활동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그마한 운동장 너머로 화트인 이야진 바다가 보이는 곳에 위치한 토성어린이집을 책임지고 있는 박귀자 원장을 만났다.

오늘도 어김없이 아이들과의 시름에도 밝은 미소와 환한 웃음으로 맞이해주는 모습에 아이들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지난 3월 취임한 제7대 고성군보육시설연합회 박귀자 회장(55세, 사진, 토성어린이집 원장)은 “저보다 더 좋은 분들이 많은데 과분한 자리여서 어깨가 무겁다”며 “앞으로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 회장은 양양 성내리 태생으로 40여년전 고성군 1대 등기소장을 역임한 부친을 따라 토성 아야진에 정착을 하게 됐다.

고성에서 학업을 모두 마친 박 회장은 평소 유아에 관심이 많아 보육관련 자격을 취득해 유아원 교사로 근무하게 됐다.

배움에 대한 열망이 강했던 그는 야간 대학을 다니며 경영학을 전공했다. 관동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창작화과를 4년간 매주 1회씩 다닐 정도로 문학에 대한 열정도 크다.

고성군의 몇 안되는 유아교사들의 산 증인 중 한 명인 최 회장은 과거의 어린이집은 지금의 환경에 비해 열악해 정부보조라고는 쌀과 밀가루, 통조림 뿐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당시 같이 했던 동료들

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을 다 해 왔으며, 그 때를 생각해보면 오히려 지금보다 감동과 사랑, 우애가 더 많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당시에 많은 어려움을 느껴 그만 두고 싶었던 생각도 했으나, 유아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많았던 터라 쉽사리 그만 두지 못하게 됐다고 한다.

그녀는 특히 어린이집 교사들의 수준이 과거에 비해 크게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시대의 생활환경 수준이 발전하면서 교육수준 또한 높아져 교사들도 노력 없이 안된다는 의식이 팽배합니다. 그래서 교사들도 교육수준을 높이기 위해 자기 개발에도 최선을 다 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6년에 원장으로 임명



된 최 회장은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친화적 교육환경이 필요한데, 고성에는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체험공원이 없어 안타깝다”고 했다.

또 자발적인 놀이육구와 학습동기를 바탕으로 놀이를 통한 활동이 이뤄져야 하며, 자연에서 얻

는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자연주의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유아 활성화를 위해 부모와 함께하는 모자 사생대회 등 학부모와 함께 하는 교육도 노력 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승근 기자

# 냉탕에 빠진 영아 심폐소생술로 구해

## 22사단 헌병대 우덕희 상병 ... 아이 부모 국방부 게시판에 감사 글

육군 22사단 헌병대에 근무하는 병사가 휴가 중 목욕탕 냉탕에 빠져 의식을 잃은 영아를 신속한 응급조치로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육군 22사단 헌병대 수송부에 근무하는 우덕희 상병(23).

우 상병은 휴가 중이었던 지난 14일 부친과 함께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던 중, 냉탕 속에 빠져 의식을 잃고 쓰러진 25개월 된 어린 아이를 발견하고 심폐소생술로 아이를 살려냈다.

우 상병에 따르면 당시 아이의 아버지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고 있을 때, 전투병 생존법 교육훈련 때 배운 심폐소생술이 떠올라 이를 활용해 아이를 구해냈다.

우 상병은 먼저 주위 사람들에게 119에 신고하도록 한 뒤, 신속하고도 침착하게 2회에 걸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아이를 옆으로 누여 등을 두드리며 물을 토하게 했다. 그러자 아이의 의식이 점차 돌아왔다.

또한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체온이 급격하게 낮아진 아이의 몸을 여러 겹의 수건으로 감싸고, 지속적으로 마사지를 실시하며 굳은 근육을 이완

시켜줬다.

아이의 끝이여 도착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담당의사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으며, 신속한 응급조치 덕분에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진단을 내렸다.

우 상병의 이러한 선행은 그의 이름만 어렵듯이 알고 있던 아이의 부모가 여러 곳을 수소문한 끝에 22사단 헌병대에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고, 부대에 이 사실을 알리면서 알려졌다. 부모는 또 국방부 민원게시판에 우 상병의 선행을 미담사례로 올려 널리 알렸다.

우덕희 상병은 “무엇보다 아이가 무사해서 다행”이라며 “부대에서 배운 심폐소생술 덕분에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고, 조국을 지키는 군인으로서 국민을 위해 무언가를 했다는 것이 보람되고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광호 기자

